

열정이 있는 회사, 삶을 가꾸는 사람들

## 최첨단 시스템 구축 ... 고품질인쇄 실현

인쇄산업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대부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든 고객이 분명히 존재하며 경쟁회사나 이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보다 더 만족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쟁자와 차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인가, 이것이 곧 마케팅의 개념인 것이다. 이제는 인쇄업계도 고객의 요구에 수동적인 형태의 경영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 인쇄업계에서는 드물게 기본적인 마케팅을 실천하는 회사가 있다. (주)예인미술(대표이사 장회운).

이 회사는 대 고객서비스, 경쟁회사와의 차별화, 부가가치 창출 등 마케팅의 기본 요소를 나름대로 잘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충무로에서 품질 우선은 물론 철저한 납기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특히 인쇄물 품질에 있어서는 경쟁업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고품질 인쇄의 실현을 위해 크레오사의 돌레브 필름출력기, 로템 CTP장비 등을 도입해 고품질 인쇄시장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로써 이 회사는 대국전 4색기 1대, 국전 5색기 1대, 국2절 4색기 2대, 2절 4색기 1대, T3절 4색기 1대 등 총 6대의 인쇄기에서부터 스캐너, 필름출력기, CTP장비 등 제반 프리프레스 시스템은 물론 기획디자인시스템을 갖추는 등 인쇄 최첨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기획디자인, 출력, 인쇄 납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해주고 있는 셈이다.

1987년에 설립된 예인미술은 인쇄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충무로에서 최대의 인쇄시설을 자랑하며 품질고급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실, 입출력 시스템실, 제작관리부, 온라인 기획부, 영업부, 생산부 등 총 8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충무로와 오장동에 각각의 생산라인을 구축, 고객을 우선하는 이념을 정립하며 좋은



장회운사장(왼쪽)  
이 출력물을 살펴  
보고 있다.

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주)에인미술의 경쟁력은 많은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과 풍부한 생산능력으로 이를 바탕으로 SK, 워너뮤직코리아, 소니뮤직, (주)유니버설, BM코리아, (주)한국BMG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를 맺고 있고 해외의 기업들과도 많은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회사가 이처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은 근로자와 사장이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이사인 장희운사장은 인쇄엔지니어 출신이라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다. 장사장은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내 회사라는 기본 마인드만 있다면 회사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인미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번쯤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매년 근로자 중 두 가족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하여 해외여행을 보내기 때문이다.

에인의 직원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직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밖에 청평 양수리에 회사연수원을 뒤 직원들에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인쇄업계 고민거리인 인력난이 이 회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인미술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신청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장사장의 꿈은 최고의 인쇄업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에인미술을 열정이 깃든 회사를 만들자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장사장은 이제 인쇄물도 소비자가 선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은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사장과 직원들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장사장은 사장이라는 직분은 고객에 있어서는 고품질의 인쇄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며 근로자에 있어서는 최전방 중대장으로 중대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고객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있다는 기초적인 경영마인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에인미술의 강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한번은 일본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 충무로 일대를 견학한 후 한국에 이런 회사들이 있냐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쇄물 품질에 매우 만족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모든 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2001년부터 일본에 포장인쇄물을 수출하게 됐다.

장사장은 만약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공은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하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바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지금도 장사장은 직원들이 깨끗한 사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김없이 새벽 6시 30분이면 사무실에 출근해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직원들의 남다른 배려와 함께 좀 더 나은 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해 고심하면서 말이다. 한번쯤은 인쇄업계 대표들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주)에인미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족, 고품질인쇄 실현과 최첨단 시스템장비 구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근로자와 회사가 하나로 뭉쳐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이 바로 이 회사의 독창성이고 그 가치인 것이다. 열정이 있는 회사, 젊은 가꾸는 사람들. 바로 에인미술의 캐츠프레이즈면서 실천강목인 것이다.

〈김광륜차장〉